

단편소설

전자레인지

이한솔

자 기 전엔 늘 종말을 생각한다. 갑자기 지구가 평 하고 터지는 것 말고, 불행이 해일처럼 닥쳐서 평생 머릿속에 새기며 살던 미래 계획이나 주택 청약 따위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일단 미친 듯이 뛰자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상황들. 나는 방 안에 이불을 구겨 안고 웅크려 누워 있다. 만약 그때 어떻게 할지 머리를 굴린다. 몇 번을 뒤적이다. 모로 돌아누울 때는 꿈, 소리가 나오다가 정자세로 다시 누울 때는 한숨이 비집고 나온다. 상상 속의 내가 도망치다 넘어지거나 하면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웨딩, 웨딩, 웨딩. 날카로운 음이 울린다. 정말 지구의 폭발을 경고하는 것처럼 울리는 이 소리는 사실 알람이다.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이만 일어나야 한다. 차라리 종말이 들이닥쳤으면 좋겠다. 얻은 것은 결국 하나도 없는데 아침은 죽지도 않고 온다. 매일 매일.

“사셨나요?”
문자가 와 있었다. 다짜고짜 뭘 샀냐는 거야. 스펀 문자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며칠 전 중고 사이트에 전자레인지와 샀다고 내 전화번호와 함께 글을 올린 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파려는 사람이 나에게 보낸 문자였다. 집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좁은 원룸에는 전자레인지가 없었다. 침대로 에어콘도 가스레인지도 있는데 전자레인지만 없었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들은 내가 이 집에 살기 전부터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생색이라도 내듯 존재감을 내뽐었다. 어떤 때엔 위축이 들기도 한다. 암만 내가 이 집에서 누워 자고 똥을 싸도 집 안에 덩어리가 큰 살림살이들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친구 집에 놀러 온 사람처럼 숨막히는 생활을 이어 나갔다. 이 공간에 온전히 내 물건을 두고 싶었고, 떠올린 것이 전자레인지였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언제든 들고 뭍 수 있는 적당한 무게와 크기의 전자레인지. 나는 그게 제일 필요했다. 문자를 보자마자 졸음이 밀려온다. 나는 답장을 하는 대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대충 묶는다. 출근하고 나서 답장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겠다. 신발을 신는데 허풍이 나온다. 오늘부터는 종말이고 뭐고 잠이나 자자. 실패할 걸 알지만 항상 다짐한다.

나는 편의점에서 일한다. 편의점은 쉬지 않고 열려 있다. 그러려면 안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 명 필요하다. 형광등은 꺼지지 않아야 사람은 주기적으로 다섯 시간 이상 꺼져야 했다. 내가 일하는 편의점은 오전과 오후와 야간으로 나누어져 교대했다. 오

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엄마는 삼 년 전에 자살했다. 일평생 사람들의 주목이려곤 거리를 걷다가 매미가 정수리 위로 떨어져 소리를 지르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그 거리에 있던 행인들이 당신을 잠깐 쳐다본 게 다였던 사람은 죽고 나서야 주목을 받았다. 생활고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던 50대 김모 씨가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되었던 비극이 비슷한 내용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앞세우곤 인터넷 기사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엄마의 소식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 밑 언저리에 ‘생활고 자살’이라는 표현으로 떠올랐으나 그날 노총각 이미지의 탤런트가 깜짝 결혼 발표를 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심연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휴대전화로 엄마의 기사를 모두 눌러 꼼꼼히 정독했다. 기사에는 채도가 낮아서 얼핏 보기에는 쓸쓸스런 사진이 곁들여 있었다. 우리 집이었다. 근처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 있었다.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는 저 노란 줄 너머의 공간은 내가 매일 보는, 매일 문을 여는 곳이었다. 나는 조사를 받고 나온 경찰서 앞에서 그 사진을 한참 쳐다봤었다.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데 그곳은 암만 봐도 우리 집이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집에 갈 시간이 다 되어서도 집에 갈 수 없었다.

“담배 하나.”
또 시작했다. 감색 등산복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들어와 무심하게 말한다. 거의 사흘에 한 번꼴은 이 소리를 듣는다. 내 뒤에 전시된 담배 종류만 해도 몇 십 가지인데, 그걸 다 뭉뚱그려 ‘담배 하나 달라’고 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걸까. 내가 독심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막 시작했던 초반에는 친절하게 “어느 것 드릴까요?”라든가, 혹은 “몇 밀리 피우세요?” 하고 다시 물었지만 육 개월이 넘게 일을 하면서 깨달았다. 저런 작자들은 내가 암만 친절하고 씩씩하게 굴어도 싸가지 밥 말아 먹은 태도로 나온다. 나는 연착된 기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미지근한 표정으로 그에게 권성으로 다시 묻는다.
“어떤 거요.”
“던힐.”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하마터면 속으로 할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나는 침과 함께 목까지 올라왔던 말을 삼킨다. 던힐도 타르 함량이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더는 남자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제일 많이 팔리는 것으로 남자에게 내민다.
“아, 이거 말고 저기 하얀색.”

“담배 하나.” 또 시작했다.

감색 등산복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들어와 무심하게 말한다.

거의 사흘에 한 번꼴은 이 소리를 듣는다.

전은 내가 일하는 시간이다. 오후는 점장이 했고 야간은 일이 힘든 건지 사람이 자주 바뀌었다. 며칠을 마주친 뒤 이제는 안면을 좀 뚫었다. 싶으면 아르바이트생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언젠가는 사라질 사람들.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카운터에 있는 남자에게 대충 인사를 한 뒤 창고에 들어가 편의점 로고가 새겨진 조끼로 갈아입었다. 밖으로 나가 포스기의 입력된 금액과 금고 안에 있는 돈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내가 카운터에 자리를 잡는 것을 확인한 남자는 뒤 창고에 들어가 조끼를 벗고 외투를 입고 나온다. 나는 금고에서 천 원권부터 오만 원권까지 지폐를 쉰 뒤 포스기에 금액을 입력한다. 남자에게 확인했다고 말하자 남자가 편의점을 나간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전 아르바이트 일과가 시작된다. 나는 카운터에 있는 담배와 굵은 복권이 몇 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간단하게 바카 청소를 한 뒤에, 손님을 기다린다.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손님이 물건을 고르는 모습에 신경을 안 쓰는 척하며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한다. CCTV가 공간의 모든 꼭짓점에 달려있어도 훔칠 사람은 어떻게든 훔치기 때문이었다. 나는 대개 손님이 매대를 보고 서 있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손님이 몸을 돌리면 휴대전화를 봤다. 내가 손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들리면 안 됐다. 일면식이 없는 사이지만 나는 그들을 적당히 신뢰해야 했다.

이곳에 오는 손님들은 구입하는 물건들이 대부분 비슷하다. 아파트 단지 앞에 자리한 편의점이라 과자나 술, 담배가 많이 팔린다. 생각보다 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데워 먹는 즉석식품이 잘 팔리지 않았다. 라면도 켈라면보다는 봉지라면이 더 잘 팔렸다.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살고 있어 밥은 집에서 해 먹는 것이겠지. 나는 종종 카운터에 서서 손님이 가져온 물건에 바코드를 찍을 때마다 그 손님이 여기서 산 물건을 밖에서 먹고 쓰는 것을 상상한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라 생각하면 알 수 없이 묘한 마음이 든다. 특히 중년의 여자가 급하게 들어와 건전지나 생리대를 사 가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랬다. 엄마

남자는 내 뒤에 있는 담배 매대로 손가락을 뻗는다. 나는 재빨리 남자가 가리킨 담배를 꺼내 바코드를 찍고 값을 불렀다.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을 내뿜는다. 남숨에 화가 섞여 뜨겁다. 사천오백 원입니다. 남자가 오천 원을 내밀고, 나는 그것을 오백 원으로 바꿔 다시 남자에게 건넨다. 남자가 등을 돌려 나간다. 다시 유리문에 종이 딸랑, 하고 울린다.

“안녕히 가세요.”
언젠가 한 유머 사이트에 그런 글이 올라왔었다. 아르바이트하다가 진상을 만나면 “안녕히 가세요” 하지 말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라고. 듣는 사람은 가세요, 할 것을 계세요,로 잘못 말하는 바람에 아차 싶을 줄러 받은 것처럼 들릴 것이라고. 나는 그 글을 본 이후로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다. 오늘도 밖으로 나가는 남자의 등에 대고 말한다.
손님이 뜰할 즈음엔 매대에 비어 있는 공간을 다시 채워 놓아야 한다. 매장 안을 한 번 둘러보니 라면이 몇 종류 비어 있었다. 나는 채워야 할 종류를 확인하고 창고에 가서 라면을 꺼낸다. 위쪽에 있는 상자를 열려고 두 팔을 쭉 뻗는데 조끼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짹 짹 울린다. 나는 두 팔에 안고 있던 라면 봉지를 한쪽 팔로 몰아서 끌어안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낸다.
“아직 주무세요?”
아까 그 전자레인지를 팔려는 사람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집에서 나올 때 문자에 답장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보통 팔려는 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신경 써서 보내나? 중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렸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다는 사례는 봤어도 팔려는 사람이 구매자의 아침잠까지 걱정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중고 사이트에 글을 자세하게 올린 것도 아니다. ‘샵니다’ 게시판에 대충 내가 사는 지역과 함께 전자레인지를 직거래로 사고 싶다는 문장 한 줄만 쓴 게 전부였다. 그걸 아예제처에 올렸으니, 이 사람은 내가 글을 올린 지 하루가 채 되지 문자를 두 통이나 보냈다. 할 일이 지저리도 없는 사람인가.



그림=최재영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윙블랜드아트칼리지 졸업 (아트런던 UNIV.)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런던, 고베, 버지니아 등 개인 초대전 25회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쇼 (콘라드호텔, 홍콩) 등 단체 초대전 및 아트페어 500여회

나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손을 뻗어 상자에 있는 라면을 꺼낸다.

사 람이 자살한 집은 아무도 사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머물 수도, 아예 집이 없는 사람처럼 방황할 수도 없었다. 집주인은 하루가 멀다하고 나에게 전화를 해왔지만, 나는 받을 수 없었다. 집에 있으면 엄마가 번기를 내리며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았다. 조사가 모두 끝나고 엄마의 사망신고까지 한 이후에는 현관문 앞에 쳐 있던 노란 폴리스 라인도 걷어졌다. 나는 한동안 같은 반 친구의 집에 머물렀다. 가끔 옷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러 그곳에 들어갈 때면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옥죄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거실 바닥에 놓인 휴대용 가스레인지에는 번개탄이 걸게 그을린 프라이팬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외에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 방에 들어가려 거실을 지날 때마다 나는 숨을 참아야 했다. 저 앞에 얼었던 채로 쓰러져 있던 엄마의 모습이 생경했다. 분명 사람이 사는 집인데 훈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집을 비롯해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우리 것이었는데 나는 매번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사람이 하나 죽었을 뿐인데 기사 사진이 보여주던 현관문의 안과 밖은 모두 폐허였다. 현실의 입소문은 인터넷 기사보다 빨랐다. 지은 지 이십 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낡은 아파트에 경찰차가 몇 번, 구급차가 한 번을 다녀가니 주민들은 들춰낸 돌에 모여 있던 개미처럼 빠르게 흩어지면 서 소문을 전하기 시작했다. 한 층에 열 개가 넘게 살아서, 현관문이 벽에 딱배처럼 줄지어 붙어있던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이웃들을 그날 거의 볼 수 있었다. 놀라움과 절절스러움이 동시에 떠오르던 그 표정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다. 활짝 열린 현관으로 경찰이 드나드는 집이 우리 집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도.

이 곳은 주로 중장년의 사람들이 산다. 편의점에 오는 손님들 대부분은 머리가 희거나 얼굴 피부가 늙어 있다. 함께 사는 가족 중에 젊은 사람이 있는 노인들은 편의점에 올 일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도 최근에 깨달았다. 언젠가 레토르트 삼계탕을 사던 남자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원래는 딸이랑 같이 사는데...”, “우리 딸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서...”, “원래 지 예비 밥을 잘 챙겨주는 아이인데...”하고 나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걸 나에게 굳이 알려려는 손님의 속사정을 내 알 바가 아니었다. 그저 바코드를 찍고 돈을 받아서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봉투 드릴까요?”, 하는 인사만 겉으로 잘하고 월급이나 받으면 그만이다. 진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늘 사는 것만 산다. 가끔 새로운 물건을 가끔 새로운 것을 사갈 때가 있다. 달에 한 번쯤은. 그건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엄마도 혼자서 편의점을 자주 갔을까.

“저기요”
라면을 채우고 일어서는데 또 문자가 왔다. 헤어진 사이에 온 연락도 세 번이면 구질구질해진다. 세 번을 연달아 온 문자가 휴대전화 화면에 가득 뜨자 짜증이 난다. 처음에 문자가 왔을 때는 가격과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보려 했으나, 지금은 얼굴은 커녕 목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이 사람에게 싫증이 나 버렸다. 마음 같아서는 답장을 안 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종일 연락이 올 것 같다. 아예 씩을 잘라 버리자. 나는 카운터에 들어와 답장을 보낸다.
“안 사요 죄송합니다”
내가 문자를 보내자마자 그 사람에게서 답장이 온다.
“이거 거의 새 건데요?”
어쩌라고. 나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린다. 사지 않

“저기요”

라면을 채우고 일어서는데 또 문자가 왔다.

헤어진 사이에 온 연락도 세 번이면 구질구질해진다.

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내가 할 일은 끝났다. 하지만 그 사람은 거듭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짜게 드릴게요”
“왜 이러는 거야, 진짜.”
헤어진 애인을 붙잡으려고 시달렸을 “자니?”, “자나 보네”, “잘 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고작 전자레인지를 팔기 위해 이렇게 신경을 쓰다니. 이 사람의 노력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짜증이 더 커서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크게 혼잣말을 하고 말았다. 곧 번뜩 아차, 싫은 마음이 든다. 손님이 들어오면 팔랑, 하고 흔들리는 종소리를 이 사람에게 신경 쓰느라 소리를 못 들었으면 어쩌나. 나는 고개를 들어 매장 안을 살핀다. 한숨이 덜컥 나온다.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
“죄송합니다.....”
과자 매대 앞에 서 있던 교복을 입은 학생이 눈썹을 올려 눈을 크게 뜨고 나에게 사과한다. 내 혼잣말에 놀랐는지 어께가 조금 움츠러들어 있다. 나는 학생에게 서둘러 사과한다. 당신에게 향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리려 과장된 몸짓으로 손바닥을 보인 채 손을 허공에 흔든다.
“아니, 아니. 혼잣말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학생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전혀럼 과자를 고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며 그 사람에게 답장한다. 성질이 나니까

문자를 치는 손가락이 빨라진다.
“뭘 얼마나 싸게 주실 건데요?”
“얼마까지 생각하셨어요?”
“안 사려고 했다가니까요”
“그럼 글은 왜 올렸어요?”
답장은 빠르게 온다. 이제는 이 사람과의 말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땐 필요했는데 지금은 안 필요해요”
“얼마까지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 값에 무조건 드릴게요”
“궁짜요”
나는 문자를 보낸 뒤 학생이 들고 온 물건의 바코드를 찍는다. 삼천칠백 원입니다. 학생이 카드를 내민다. 나는 카드 결제기에 카드를 찌는다. 봉투 필요하세요? 아니요. 기계음이 울리고 나는 카드를 뺐아 학생에게 건넨다. 보통이면 이쯤에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나 “안녕히 가세요”를 해야 하는데 조금 전 있었던 일이 자주 신경 쓰인다.

“저... 아까는 죄송했어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학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학생에게 미소로 답한다. 학생이 나간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 말은 정말 또 와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니 도착한 문자가 한 통도 없다. 그럼 그렇지. 진짜 이렇게 대응할걸.
퇴근까지 세 시간 남았을 때 물건이 새로 들어온다. 보통 오전 시간대에는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이 들어온다. 나는 우유 상자에 고이 담겨 온 식품들을 즉석식품 냉장 코너에 올려놓는다. 원래 있던 것들은 뒷면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날짜가 지난 것들만 따로 모아 냉장창고로 가지고 간다. 보통 이런 걸 ‘폐기’라고 부른다. 유통기한이란 말 그대로 팔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뿐이지, 먹어도 되는 음식들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식대는 보통 폐기로 해결되는 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먹지 않는다. 저것들을 입에 넣는다는 건 마치 싱크홀 같이 깊고 어둡게 잠식된 엄마의 기억 속으로 다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로. 냉장창고에서 나와 카운터로 돌아가는데 입안에서 쓴맛이 난다. 나는 엄마를 죽인 음식들을 팔고 있다.